

## 지식가능성 역설과 반사실적 조건 명제에 대한 논파자\*

김 남 중

**【국문요약】** 모든 (의미론적) 반실재론자들은 모종의 검증원칙을 받아들인다. 그 원칙에는 반직관적인 강한 검증원칙과 상대적으로 그럴 듯한 약한 검증원칙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당연히 반실재론자들은 약한 검증원칙을 선호해왔는데, 이른바 지식가능성 역설은 사실 그 두 가지 형태의 검증원칙들이 동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징튼은 새로운 형태의 검증원칙을 제시하지만, 그녀의 검증원칙 역시 그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징튼은 반사실적 조건명제를 이용한 지식모형을 제공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지식모형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논할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비결정론적인 미시적 현상의 세계에서는 극히 낮은 물리적 확률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일어나는데 성공하는 사실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런 사실들과 연관된 반사실적 조건명제는 인식적 논파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알려질 수 없으며, 따라서 에징튼의 지식모형은 많은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고 논할 것이다.

**【주요어】** 반실재론, 검증원칙, 인식적 논파자

접수일자: 2014.01.02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4.01.25 게재확정일: 2014.02.10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4-A00060). 이 연구의 지도교수였던 이병덕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님과 초기 원고에 대해 조언을 준 박일호 경희대 연구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1. 서론

진리가 지식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플라톤 시절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Shope 1983, pp. 12-17). 즉 진리는 언제 지식이 성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제약 조건을 부과한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역은 어떨까? 다시 말하면, 지식은 언제 진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것일까?

더미를 비롯한 이른바 반실재론자들은 이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Dummett 1959, 2001, 2009; Tennant 1997, 2001, 2009).<sup>1)</sup> 그렇지만 이들이 지식 그 자체가 진리의 필요조건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은,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 알려지지 않을 명제는 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강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주목 받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사실이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시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정확히 몇 시였는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며,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더군다나, 내가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아닌 이상, 파파라치들이 나를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때 몇 시였는지 몰랐고, 모르며, 모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몇 시에 집을 나섰느냐는 물

---

1) 통상 “반실재론” (“antirealism”)은 어떤 사실도 어떤 인식주체의 심적 상태나 언어로부터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키며, “의미론적 반실재론” (“semantic antirealism”) 또는 “검증주의”(“verificationism”)는 어떤 명제도 인식주체에 의해서 실제로 검증되거나 최소한 검증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룬 논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대체로 “반실재론”이라는 호칭으로 후자를 가리켜 왔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굳이 “의미론적”을 붙이지는 않기로 하였다.

음에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참된 답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은 진리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실재론자들은 최소한 지식의 가능성은 진리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은 앞 문단에서 비판한 주장보다는 훨씬 그럴 듯한 주장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다시 위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실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도 오늘 아침 내가 몇 시에 집을 나섰는지 몰랐고, 모르며, 모를 것이지만, 내가 그때 마음먹었다면 시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나는 그때 내가 몇 시에 집을 나섰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논문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지만, 누군가 끈기를 가지고 세어나간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식 가능성이 진리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은, 지식이 진리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럴 듯하다. 이 논문에서는 윌리엄슨의 용어법을 따라서 앞의 원칙을 “약한 검증원칙”, 뒤의 원칙을 “강한 검증원칙”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Williamson 2009).

일단 이 두 검증원칙들을 서로 구별하고 나면, 지식이 진리를 제약한다는 반실재론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강한 검증원칙에 연루되지 않고도 약한 검증원칙을 통해 그 제약을 엄밀히 형식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두 원칙들이 논리적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프레드릭 피치의 증명에 의하면, 꽤 놀랍게도, 강한 검증원칙은 약한 검증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Fitch 1963). 그 반대 방향은 물론 성립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동치이다. 이것은 그럴 듯한 검증원칙이 어이없는 검증원칙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를 통상 “지식가능성 역설”이라고 부른다.<sup>2)</sup>

이 문제를 반실재론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에징튼은 새로운 형태의 검증원칙을 제안한다 (Edgington 1985). 그녀에 의하면, 어떤 명제든 그것이 실제로 참이려면, 그 명제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sup>3)</sup> 즉, 어떤 명제가 실제로 참이 되려면, 그 명제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라는 것을 아는 가능한 인식주체가 있어야 한다. 앞의 예들을 다시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실제 상황에서 오늘 아침 몇 시에 집을 나섰는지를 아는 가능한 인식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 논문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실제상황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아는 가능한 인식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몇 시에 집을 나섰는지, 이 논문에 “지식”이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참된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된 에징튼의 검증원칙은 지식가능성 역설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가능한 상황에 있는 인식주체가 대체 어떻게 실제 상황, 즉 우리 상황에서 명제  $p$ 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까? 명백히, 그 인식주체가 “실제 상황에서  $p$ 가 성립한다”는 문장으로 표현할만한 명제를 믿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 인식주체가 처한 상황에서  $p$ 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믿음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에징튼의 이론의 이러한 약점은 윌리엄슨의 여러 논문에서 상세히 비판된 바 있다 (Williamson 1987a, 1987b, 2000).

물론 에징튼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관련된 최신 논문에서 에징튼은 위 물음에 대한 다음 대답을 제시

- 
- 2) 많은 실재론자들은 이 결과가 전혀 역설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반실재론, 혹은 최소한 검증원칙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반실재론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간주한다 (Hart and McGinn 1976; Williamson 2000).
- 3) 이 논문에서는 “가능세계 (possible world)”보다는 “가능한 상황 (possible situation)”이라는 주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이 논문의 논지에 있어서 두 용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징튼과 윌리엄슨이 후자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한다 (Edgington 2010). 명제  $p$ 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고, 어떤 가능한 인식주체가 있는데 그녀의 상황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C$ -상황이 바로 실제 상황이며, 그 인식주체는 만일  $C$ 였다면  $p$ 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즉 반사실적 조건문의 표준의미론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C$ -상황에서  $p$ 라는 사실을) 안다고 가정하라. 이 경우 그 인식주체는 바로 실제 상황에서  $p$ 가 참임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에징튼의 검증원칙은 만족된다.

이 논문의 목표는 에징튼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그 문제점이란, 많은 실제로 참된 명제  $p$ 와 관련하여, 설혹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인식주체가 어떤 가능한 상황에 존재하고,  $C$ 였다면  $p$ 였을 것이라는 조건 명제가 에징튼의 이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 명제는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논하겠지만,  $C$ 였으면  $p$ 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로막는 논파자 (defeater)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Lehrer and Paxson 1969).

이 논문에서 필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먼저 2절에서는, 전통적인 검증원칙을 보다 엄밀하게 제시하고, 피치의 증명에 의해 그 원칙이 거짓임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에징튼의 검증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이 어떻게 피치의 증명을 회피하는가를 논할 것이다. 4절에서는 어떻게 단지 가능한 상황에 있는 인식주체가 실제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에징튼의 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5절에서는 인식적 논파자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6절에서는 에징튼의 이론에 대한 반례를 제시할 것이다.

## 2. 검증원칙과 지식가능성 역설

이 절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겠다. 첫째, 전통적인 검증원칙을 엄밀하게 형식화한다. 둘째, 그 원칙이 참이라면 가지게 될 철학적 의미를 논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피치의 증명을 통해서, 만일 지식의 가능성이 진리의 필요조건이라면, 지식 자체가 진리의 필요조건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알려지지 않은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의 가능성은 진리의 일반적 필요조건일 수 없다.

이 논문에서 연결사  $K$ 는 다음 정의에 따라 쓰일 것이다. 임의의 명제  $p$ 에 대해서

$Kp$ 는 참이다 IFF 누군가가 어떤 시점에  $p$ 를 안다.

즉  $K$ 는 지식연결사이다. 표준 인식논리에 따르면  $K$ 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지닌다 (Hintikka 1962). 임의의 명제  $p$ 에 대해서

- (F) 만일  $Kp$ 이면  $p$ 이고,
- (D) 만일  $K(p \& q)$ 이면  $Kp \& Kq$ 이다.

이제 반실재론자들의 핵심주장인 (약한) 검증원칙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  $p \rightarrow \diamond Kp$ .

여기서  $p$ 는 명제변항이다. 말로 하자면, 어떤 명제  $p$ 가 참이면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p$ 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식의 가능성은 진리의 필요조건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지식가능성 역설을 살펴보자. 반실재론자에게는 불행히도, (V), (F), 그리고 (D)를 모두 받아들이면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Fitch 1963).

1. $K(p \& \sim Kp)$	가정
2. $Kp \& K \sim Kp$	1 D
3. $Kp \& \sim Kp$	2 F
4. $\vdash \sim K(p \& \sim Kp)$	1-3 귀류법
5. $\Box \sim K(p \& \sim Kp)$	4 필연화
6. $\sim \diamond K(p \& \sim Kp)$	5 쌍대성
7. $(p \& \sim Kp) \rightarrow \diamond K(p \& \sim Kp)$	V
8. $\sim (p \& \sim Kp)$	6, 7 후건부정

고전 논리에 의하면 (8)은 다음 주장과 동치이다.

9. $p \rightarrow Kp$	8 실질함축 정의
-----------------------	-----------

이 결론이 왜 불합리한지 알려면, (9)의 대우인 (따라서 고전적으로 동치인)  $\sim Kp \rightarrow \sim p$ 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 어떤 명제 이건, 누군가에게 어떤 시점에서 실제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참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몇 시에 집을 나섰는지 나를 비롯한 누구도 몰랐고, 모르고 있으며, 모를 것이라도, 내가 그 시점에 집을 나섰다는 것이 참인 그런 시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강한 직관을 위배한다. 이것이 이른바 지식가능성 역설이다.

이 역설을 피하려 한다면 (F), (D), 그리고 (V)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F)와 (D)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은 (V), 즉 검증원칙일 것이다. 물론 그것은 반실재론자들의 핵심 주장이기 때문에, 지식가능성 역설은 반실재론자들에게 대항해 실재론자들이 쓸 수 있는 강력한 논변을 제공한다.

### 3. 에징튼의 지식가능성 역설에 대한 해결책

이 절에서는 지식가능성 역설에 대한 에징튼의 해결책을 설명한다 (Edgington 1985). 먼저, 에징튼의 수정된 검증원칙을 소개하고 그 원칙이 왜 전통적 검증원칙보다 나은지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원칙이 왜 지식가능성 역설로부터 자유로운지 설명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징튼의 새로운 검증원칙은 그 역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해결책은 그 역설로부터 독립적인 이유로 그럴 듯한 원칙에 기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연결사  $A$ 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일 것이다. 모든 명제  $p$ 에 대하여

$Ap$ 는 참이다 IFF  $p$ 는 실제 상황에서 참이다.

즉  $A$ 는 실제성 연결사이다. 위 문장 안에서 “실제”는 비색인적 의미(non-indexical sense)로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p$ 와  $Ap$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p$ 가 어떤 양상 문맥에서 쓰이면 그 문맥이 나타내는 가능상황 속에서  $p$ 가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Ap$ 는 문맥에 상관없이 실제 상황에서  $p$ 가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p$ 는 상황  $s$ 에서 참이다

라는 주장과

$Ap$ 는 상황  $s$ 에서 참이다

라는 주장이 있을 때, 전자는  $p$ 가  $s$ 에서 성립한다는 주장인 반면,



후자는 ( $s$ 가 어떤 상황인가에 상관없이)  $p$ 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라는 주장이 된다.<sup>4)</sup>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명제  $p$ 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점의 심적 상태들을 남김없이 기술하는 명제라고 하자. 실제로는 누구도  $p$ 를 알지 못하며, 물론 이 사실도  $p$ 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p$ 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앎은 믿음과 함께 참됨을 요구하는데,  $p$ 가 믿어지면,  $p$ 가 기술하는 심적 상태들이 바뀌게 되어,  $p$ 는 더 이상 참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누군가가  $Ap$ 를 안다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아닌 어떤 가능 상황에서  $Ap$ 가 알려지면  $p$ 는 그 상황에서 참이 아니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 상황에서  $p$ 가 참되게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결사  $A$ 를 가지고 다음 검증원칙을 형식화할 수 있다.

---

4) 이런 점에서 연결사 " $A$ "는 프라이어의 고정시제연결사 " $Now$ "와 비슷한 점이 있다 (Prior et al 2003, pp. 171-194). 편의상 영어로 설명하자면, "Yesterday, scientists in NASA thought that the best time to launch the new space rocket was the present moment"는 NASA의 과학자들 생각이 맞다면 그 신형 로켓을 발사하기에 최선의 시점은 어제였다는 함축을 가지는 반면, "Yesterday, scientists in NASA thought that the best time to launch the new space rocket was now"는 그 과학자들의 생각이 맞았다면 발사를 위한 최선의 시점은 (발화자의 관점에서) 지금이라는 (즉 그 과학자들의 시점에서는 내일이라는) 함축을 가진다. 즉 "present"가 가리키는 시점은 종속절의 시제에 따라서 바뀌는 반면, "now"는 종속절의 시제에 상관없이 발화자의 현재 시점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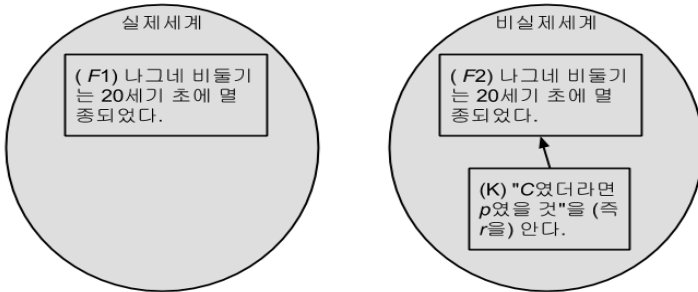
(E)  $Ap \rightarrow \diamond KAp$ .

여기서 전건은  $p$ 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라는 것을 뜻하며, 후건은  $p$ 가 실제 상황에서 참임이 어떤 가능 상황에서 알려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E)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된다. 우리 상황에서 참인 모든 명제에 대해서, 어떤 가능 상황이 있어서, 우리 상황에서 그 명제가 참임이 그 가능 상황 안에서는 알려진다.

에징튼은 (1985) (V)보다는 (E)가 반실재론자들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검증원칙이라고 제안하는데, 그 이유를 시간과 가능성 사이의 유비를 통해 설명한다.  $p$ 가 지금 참이라고 가정하자. 누군가가 나중에 앞에 성립한다고 가정한 그 사실을 알려면 어떤 앎을 가져야 할까? 만일 그 나중 시점에 “지금  $p$ 가 참”이라는 지식을 가진다면, 그것은 적절한 의미에서 그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p$ 가 참”이라는 현재의 사실과 “지금  $p$ 가 참”이라는 미래의 지식은 다른 시점들에 대한 사실과 지식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비가 온다”는 내일의 믿음이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이 내일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제 비가 왔다” 또는,  $x$ 월  $y$ 일이 오늘의 날짜일 때, “ $x$ 월  $y$ 일 비가 왔었다”라는 믿음을 내일 누군가가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명제  $p$ 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라고 하자. 비실제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면 그는 어떤 내용의 지식을 가져야 할까? 만일 그 비실제 상황에서 “ $p$ 가 참”이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지식을 가진다면, 시간의 경우와 유비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적절한 의미에서 그 사실을 안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 상황에서 성립하는  $p$ 라는 사실과 그 비실제 상황에서 가지는 “ $p$ 가 참”이라는 지식은 다른 상황들에 대한 사실과 지식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나그네 비둘기는 20세기 초에 멸종했다는 것이

실제 세계에서 성립하는 사실이고, 어떤 비실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그네 비둘기는 20세기 초에 멸종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그 비실제 상황에서 성립하는 사실 (“F2”이라고 부르자)을 아는 것이지, 실제 상황에 대한 성립하는 사실로서 20세기 초 나그네 비둘기의 멸종(“F1”이라고 부르자)을 아는 것은 아니다. 도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형 1> K는 실제 상황 속의 사실 F1이 아니라 비실제 상황 속의 사실 F2에 대한 앎이다.

이러한 유비를 생각해 볼 때, 반실재론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참인 모든 명제에 대하여 어떤 가능상황 안에서 그 명제가 참이기도 알려지기도 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인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가능상황 안에 어떤 인식주체가 있어서 실제 상황, 즉 우리 상황에서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실재론자들은 전통적인 검증원칙, 즉 (V)가 아니라, 에징튼의 새로운 검증원칙, 즉 (E)를 채택해야 할 훌륭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E)는 지식가능성 역설로부터 자유롭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이 점을 알기 위해서 2절에서 제시한 증명 일부를

다시 살펴보자.

- |  |             |
|--|-------------|
| 6. $\sim \diamond K(p \& \sim Kp)$                       | (1)-(5)의 결과 |
| 7. $(p \& \sim Kp) \rightarrow \diamond K(p \& \sim Kp)$ | V           |
| 8. $\sim (p \& \sim Kp)$                                 | 6, 7 후건부정   |

즉 어떤 상황에서 참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명제  $p$ 가 있다면,  $p$ 가 참이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V)에 의하면 알려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떤 참된 명제도 누군가 어느 시점에 알기 마련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제 (V)를 (E)로 대체해 보자.

- |  |             |
|--|-------------|
| 6. $\sim \diamond K(p \& \sim Kp)$                         | (1)-(5)의 결과 |
| 7*. $(p \& \sim Kp) \rightarrow \diamond KA(p \& \sim Kp)$ | E           |
| 8*. $\sim (p \& \sim Kp)$                                  | 6, 7 오류추론   |

즉 참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명제는 있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E)로부터는 도출되지 않는다. 이것은,  $q = (p \& \sim Kp)$ 로 정의할 때, 전통적인 검증원칙은  $q$ 가 어떤 가능상황에서 참되게 성립하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에징튼의 검증원칙은  $q$ 가 (실제 상황에서 참임이) 알려지는 가능상황에서 참이기도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에징튼의 검증원칙이 지식가능성 역설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의 검증원칙이 단지 그 역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통적 검증원칙을 에징튼이 제안하는 바대로 수정해야 할 독립적 이유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 새로운 검증원칙이 단지 지식가능성 역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녀의 해결책을 더 매력적

으로 보이게 만든다.<sup>5)</sup>

#### 4. 실제 상황에 대한 비실제 상황에서의 얇

그러나 에징튼의 이론이 지식가능성 역설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려면, 한 가지 과제를 더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상황에서  $p$ 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그녀가 이 과제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할 것이다 (Edgington 2010).

이미 살펴본 대로,  $q \& \sim Kq$  형태의 명제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제가 알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명제의 첫 번째 연언지를 아는 것은 두 번째 연언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릴 터인데, 그 연언명제 전체(즉  $q \& \sim Kq$ )가 알려지려면 두 번째 연언지도 물론 참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q \& \sim Kq$ 가 실제상황에서 참이라고 할 때, 두 연언지가 모두 실제상황 안에서 참이라는 것을 실제상황 밖에서 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논리적 모순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p$ 가 실제로 참이라면  $Ap$ 를 아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에징튼의 검증원칙이  $p=(q \& \sim Kq)$ 인 경우 어떻게 모순 없이 만족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모순이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 명제  $p$ 가 성립한다는 것을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설령 단지 가능한 상황에

5) 에징튼과 달리 테넌트는 검증원칙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역설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Tennant 1997). 이에 대해 핸드와 콰니그(Hand and Kvanvig 1999, pp. 422-8)은 그러한 제안이 대중처방적(ad hoc)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테넌트는 이것이 잘못된 비판이라고 반박하지만 (Tennant 2001b), 애초부터 그 적용범위가 제약되지 않는 검증원칙을 채택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에징튼의 검증원칙은 이런 측면에서 이론적 장점을 가진다.

있는 어떤 인식주체가 “실제 상황에서  $p$ 가 참이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명제를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인식주체가 속한 상황에서  $p$ 가 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Ap$ 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징튼의 검증원칙이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에징튼의 (2010) 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p$ 가 시점  $t$ 에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술하는 명제라고 하자. 실제 상황에서  $p$ 가 성립한다는 것을 어떤 가능한 그러나 비실제 상황에 있는 인식주체가 알려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알면 된다.

만일  $C$ 가 성립했다면  $p$ 가 성립했을 것이다.

여기서 조건  $C$ 는  $t$ 이전의 어떤 시점들에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기술한다. 그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만 주어진 인식주체가 처한 비실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다.

에징튼의 이 제안이 어떻게 다른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질 있는지 설명해주는지를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sup>6)</sup> 기봉이네 집 근처에 사는 마라토너 남봉이는 매일 아침 훈련을 한다. 남봉이는 2010년 1월 13일 아침 다섯 시 이십오 분에 팔봉이네 집 앞으로 가는 길과 기봉이네 집 앞으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다다른다.

상황 1: 남봉이는 팔봉이네 집 앞으로 지나가는 길로 달려간다.

상황 2: 남봉이는 기봉이네 집 앞으로 지나가는 길로 달려간다.

---

<sup>6)</sup> 이 예는 에징튼(Edgington 2010)에 나온 예와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봉이는 실제로는 팔봉이네 집 앞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 즉 상황 1이 실제 상황이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고, 기봉이 스스로는 자신이 몇 시에 집을 나섰는지 몰랐기 때문에

(p) 기봉이는 2010년 1월 13일 아침 정확히 아침 다섯 시 반에 집을 나섰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는 명제는 실제로 참이다.)<sup>7)</sup>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이 명제를 알지 못한다.

다음으로 (이 예에서는 비실제 상황인) 상황 2에 초점을 맞춰 보자. 남봉이는 이 상황에서 기봉이가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한다. 기록에 민감한 남봉이는 손목시계를 늘 확인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기봉이가 2010년 1월 13일 정확히 아침 다섯 시 반에 집을 나섰다는 것은 알지만, 그 명제는 이 상황에서 거짓이기 때문에,  $p$ 를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남봉이는 다음 조건 명제는 알 것이다.

(r) 만일 (C) 내가 다섯 시 이십오 분에 기봉이네 집 앞을 지나는 길이 아닌 팔봉이네 집 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면, (p) 기봉이는 여전히 다섯 시 반에 집을 나섰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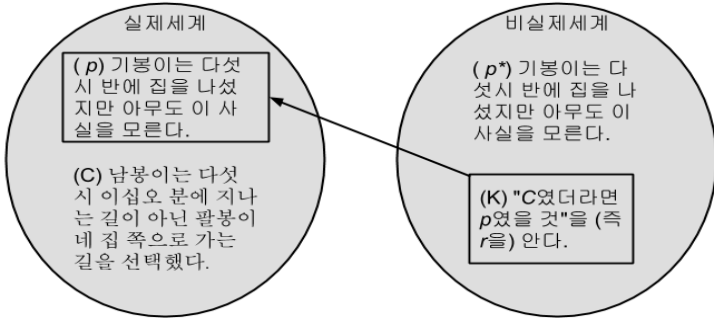
왜냐하면 남봉이가 훈련을 위해 어떤 코스를 선택하던 그것은 기봉이가 정확히 몇 시에 집을 나서는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상황 2에서, C였다면  $p$ 였으리라는 것을 남봉이는 안다.

우리는 위 예에서 두 가지 사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실제 상황인 상황 2에서 남봉이가 알고 있는 조건명제  $r$ 의 전건  $C$

---

<sup>7)</sup> 즉 기봉이가 2010년 1월 13일 다섯 시 반에 집을 나섰다는 명제를  $q$ 라고 한다면  $p$ 는  $q \& \sim Kq$ 와 같은 명제이다.

는 바로 실제 상황, 즉 상황 1을 짚어내는 조건이다.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표준의미론에 의하면  $r$ 은 상황 2에 가장 가까운  $C$ -상황에서  $p$ 가 참이라는 명제인데, 상황 2에 가장 가까운  $C$ -상황은 바로 상황 1, 즉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가능한 상황에 있는 남봉이가 실제 상황에서  $p$ 가 참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처럼 된다.



<도형 2> K는 비실제세계에 대한 명제  $p^*$ 에 대한 앎이 아니라 실제세계에서 성립하는  $p$ 에 대한 앎이다.

둘째, 상황 2에서 남봉이가 어떻게  $r$ 을 아는지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상황 2에서 남봉이가 “실제 상황에서  $p$ 가 참”이라는 문장이 표현하는 바를 믿는다면 상황 2에서  $p$ 가 참이라고 믿는 셈이 되어버리는 반면, 같은 상황에서 “ $C$ 였다면  $p$ 가 참”이라는 문장이 표현하는 바를 안다면 실제 상황(즉 상황 1)에서  $p$ 가 참이라고 아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예징튼의 제안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검증원칙: 임의의 명제  $p$ 에 대해서,  $p$ 가 실제로 참이라면,  $p$ 가 실제로 참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

반사실적 지식의 모형: 어떤 명제  $p$ 에 대해서,  $p$ 가 실제 상황에서



참이라는 것이 알려지려면,  $C$ 였다면  $p$ 였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조건 명제를 아는 인식주체가 어떤 가능상황에 존재하면 된다. 이때 그 가능상황에 가장 가까운  $C$ -상황은 실제 상황이어야 한다.

위 검증원칙은 에징튼으로 하여금 지식가능성 역설을 회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위 지식의 모형은 어떻게 단지 가능한 상황에 있는 인식주체가 실제 상황, 즉 다른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알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 5. 논파자란 무엇인가?

레러와 팩슨은 앎은 논파되지 않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 (undefeated justified true belief)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Lehrer and Paxson 1969). 필자는 이들이 제시하는 이른바 논파자 개념을 이용하여 에징튼의 반사실적 지식 모형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 전 초작업으로서 이 절에서는 논파자가 어떤 개념인지 소개하겠다.

널리 알려진 대로, 게티어는 때때로 정당화된 참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앎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Gettier 1963). 다음 예를 살펴보자.

갑돌이의 사무실 동료 을희는 그랜저를 몰고 다닌다. 을희는 그 차가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다니며, 갑돌이가 그의 말을 의심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에 따라 갑돌이는 “내 사무실 동료 가운데 그랜저 소유자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사실 그 차는 을희와 불륜 관계에 있는 부장님이 빌려준 것이고, 을희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차가 자기 차라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갑돌이의 또 다른 동료 병수는 실제로 그랜저를 소유하고 있지만, 한번도 그 차를 갑돌이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갑돌이의 믿음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지만 앎은 아닌 사례이다.

따라서  $\text{앓} = \text{정당화된 참된 믿음}$ 이라는 분석에는 반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만일  $\text{앓}$ 을 더 단순한 개념들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레러와 팩슨이 제시한 다음 분석을 고려하여 보자 (Lehrer and Paxson 1969).

$S$ 가  $p$ 를 안다는 것은 곧 (i)  $p$ 가 참이고 (ii)  $S$ 가  $p$ 를 믿으며 (iii)  $S$ 가  $p$ 를 믿음에 있어서 증거  $e$ 에 의해서 정당화되었으며 (iv)  $p$ 에 대한 증거로서의  $e$ 에 대한 논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8)</sup>  
 $e$ 가  $p$ 의 증거일 때,  $d$ 가  $p$ 에 대한 증거  $e$ 의 논파자(defeater)라는 것은 곧  $d$ 가 참이며  $e \& d$ 는  $p$ 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분석은 흔히  $\text{앓}$ 의 논파되지 않은 정당화된 참된 분석 또는 UJTb 분석이라고 불린다. 직관적으로 보아 논파자의 개념은 다음처럼 이해될 수 있다. 합리적 인식주체  $S$ 가 증거  $e$ 에 근거하여  $p$ 를 믿는데 어떤 사실  $d$ 가 ( $S$ 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성립하고 만일  $S$ 가  $e$ 뿐만 아니라  $d$  역시 받아들였다더라면  $p$ 를 믿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  $d$ 는  $p$ 에 대한 증거로서의  $e$ 의 논파자일 것이다.

위 분석과 개념을 앞의 예에 적용해 보자. 갑수는 사무실 동료 가운데 ( $p$ ) 그런저 소유자가 있다고 참되게 믿었다. 또 그 믿음  $p$ 는 ( $e$ ) 율희가 그런저를 몰고 다녔고 그 차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그 증거  $e$ 에 대한 논파자, 즉 ( $d$ ) 율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성립하기 때문에  $p$ 에 대한 갑수의 참된 믿음을  $\text{앓}$ 으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 여기서  $d$ 가

8) 사실 Lehrer와 Paxson은 (1969)  $\text{앓}$ 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고려하는데, 위 분석은 그 중 가장 단순한 것이다. 두 철학자들 스스로는 어떤 종류의 반례를 다루기 위해서 더 복잡한 분석을 선호하는데, 첫째 그 복잡한 분석 역시 Johnsen 등에 (1974) 의해서 반례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text{앓}$ 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예제에서  $\text{앓}$ 이 성립하는지 판정하기에 충분히 유용한  $\text{앓}$ 의 잣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한 분석만을 다룰 것이다.

$e$ 에 대한 논파자라는 것은 만일 갑수가  $e$ 뿐만 아니라  $d$ 까지 알았다라면  $p$ 를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하다.

이 시점에서 독자는 논파자의 개념과 지식가능성 역설 사이에 어떤 접점이 존재하는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p$ 가 있다고 가정하라. 첫째,  $p$ 가 실제로 참이다. (즉  $Ap$ 가 참이다. 따라서 어떤 가능상황에서도  $Ap$ 는 참이다.) 둘째,  $Ap$ 가 어떤 증거에 의거해서 가능상황  $s$ 에서 믿어지지만 그 증거에 대한 논파자 역시  $s$ 에서 성립한다. 셋째, 그 논파자로 말미암아  $Ap$ 에 대한 정당화된 참된 믿음은  $s$ 에서 앎이 되지 못한다. 만일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명제  $p$ 가 존재한다면  $p$ 가 실제로 참임에도 불구하고  $Ap$ 가 알려질 수 없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에징튼의 검증원칙에 대한 반례가 될 것이다.

## 6. 반사실적 조건명제에 대한 논파자

이 절에서는 드디어 에징튼의 이론에 대한 (즉 그녀의 검증원칙+ 반사실적 지식 모형에 대한) 반례가 존재한다고 논하려 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녀의 검증원칙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류의 반사실적 조건 명제가 어떤 가능한 상황에서 알려져야 한다. 이 절에서는, 첫째, 어떤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에 대한 논파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둘째, 그 논파자는 주어진 반사실적 조건 명제에 대한 앎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논하겠다.

먼저 다음 논변을 살펴보자.

전제 1. 소립자 수준에서는, 그 확률이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전제 2. 그런 사건을 기술하는 명제를 후건으로 하고 그 사건 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만을 기술하는 조건을 전건으로 하는 반사실적 조건명제가 어떤 증거에 기반하여 믿어진다고 해도, 그 증거

에 대해서는 논파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옳이 될 수 없다.

전제 3. 만일 전제 1과 2가 맞다면, 에징튼의 이론에는 반례가 있다.

결론. 에징튼의 이론에는 반례가 있다.

이 논변은 명백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전제 3은 분석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결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전제 1과 2를 옹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먼저 전제 1은 참일까?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세계의 자연법칙들은 비결정론적이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소립자 수준의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t$ 에 일어난다는 명제를  $p_t$ 라고 한다면,  $t$  이전까지 이 우주의 전체 역사를  $H_{t-1}$ , 그 자연법칙을  $L$ 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L \& H_{t-1}$ 가  $p_t$ 나  $\sim p_t$ 를 함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L \& H_{t-1}$ 가 주어지더라도  $p_t$ 가 기술하는 사건이  $t$ 에 일어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적 자연법칙  $L$ 은,  $H_{t-1}$ 가 주어졌을 때, 최소한  $p_t$ 의 확률이 얼마일지는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Polkinghorn 2002, pp. 39-57).

예를 들어서,  $H_{t-1}$ 가  $t$  전의 우주의 전체 역사이고, 특정한 종류의 소립자가  $t-1$ 에 특정한 원소에 속하는 원자에 비추어졌다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자. 이때  $H_{t-1}$ 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그 원자가  $t$ 에 분열할 객관적 확률(objective chance)이  $1/1,000,000$ 이라고 하자. 즉,  $p_t$ 가 그 원자가  $t$ 에 분열한다는 명제라고 할 때,

$$\text{Chance}(p_t/H_{t-1})=1/1,000,000$$

이라고 하자. 여기서  $\text{Chance}(-)$ 는 자연법칙  $L$ 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객관적 확률함수이다.

그런데, 양자역학적 자연법칙이, 어떤 조건이 지금 성립할 때 다

음 순간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아무리 낮게 예측한다 해도, 그 사건이 다음 순간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 조건이 충분히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한번쯤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높을 것이다. 위 예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언급된 종류의 소립자가 그 원소의 원자에 부딪히는 사건이 10,000,000회 반복되었다고 할 때,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 원자가 분열할 확률이 1/1,000,000에 불과해도, 그렇게 자극된 원자가 적어도 한번 분열할 객관적 확률은 약 0.9999546에 이른다.<sup>9)</sup> 이것은 소립자 수준에서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아도, 우주 전체적으로는 한번 이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으리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전제 1은 거의 확실히 참이다.

다음으로, 전제 2는 참인가? 앞에 제시한 예에 에징튼의 반사실적 지식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면  $p_i$ 가 실제로 참이기 위해서는 다음 형태의 조건명제가 어떤 가능한 상황  $s$ 에서 알려져야 한다.

만일  $C$ 였다면  $p_i$ 였을 것이다.

여기서  $C$ 는  $s$ 에 가장 가까운  $C$ -상황이 실제상황인 그런 조건이다. 더하여  $C$ 는 세계의  $t$ 이전의 상황을 기술한다고 가정한다.<sup>10)</sup> 위 조건명제가  $s$ 에서 알려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s$ 에서 참이고, 믿어지고,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조건들이 모두 만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건

9) 그렇게 10,000,000회 자극된 원자가 적어도 한번 분열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극된 원자들이 한번도 분열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일 확률은  $1 - (1 - 1/1,000,000)^{10,000,000} = 0.9999546 \dots$  이다.

10) 에징튼 스스로도 이런 가정을 도입한다 (Edgington 2010). 사실, 에징튼 스스로는 명료히 하지 않았지만, 이 가정은 그녀의 반사실적 지식 모형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명제는 상황  $s$ 에서 알려질 수 없다. 그 상황에서는 다음 두 사실이 성립한다.

사실 1.  $\text{Chance}(p_i/H_{t-1}) \approx 0$ .

사실 2. 가장 가까운  $C$ -상황에서  $H_{t-1}$ 이다

앞에서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text{Chance}(p_i/H_{t-1}) = 1/1,000,000$ 라고 상정했다.  $\text{Chance}(-/-)$ 는 실제 상황의 자연법칙  $L$ 을 토대로 한 객관적 확률함수이고,  $H_{t-1}$ 는  $p_i$ 의 객관적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같은 자연법칙을 공유하는 모든 상황에서 같은 사실이 성립할 것이다. 즉 사실 1이  $s$ 에서 성립할 것이다. 애초에  $H_{t-1}$ 은 실제 상황의  $t-1$ 까지의 역사로 정의되었고 실제 상황이  $s$ 에 가장 가까운  $C$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도 물론  $s$ 에서 성립한다.

이제 필자는 사실 1과 2의 연연이 주어진 조건 명제의 증거에 대한 논파자라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오해를 지적하고 해명하는 것이 유용하겠다.<sup>11)</sup> 첫째, 필자는  $C$ 였다면  $p_i$ 였을 것이라는 명제가  $s$ 에서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목표는 설혹 그 조건명제가 그 상황에서 참이라 하더라도 알려질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자는 오히려 그 조건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둘째, 사실 1과 사실 2가 위 조건명제가 알려지는 것을 막는 논파자이기 위해서 그 사실들 자체가 알려지거나 믿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하자면, 앞 절에서 논한 갑수의 예에서는, 율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갑수의 앎을 막는 논파자이기기는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갑수에게 알려졌던 것은 아니다. 셋째, 에징튼의 이론, 즉 그녀의 검

11) 이 문단에서 거론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명하도록 격려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증원칙과 반사실적 지식모형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꼭 지식가능성 역설과 유사한 사례, 즉 관련된 조건명제의 후건이  $q \& \sim Kq$  형태인 경우를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에징튼의 이론, 즉 그녀의 검증원칙과 반사실적 지식 모형은 명백히 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염두에 두고 제안된 이론이다. 물론 에징튼의 이론이 — 지식가능성 역설과 전혀 상관없는 반례에 의거해서라도 — 일단 보편적으로 참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 이론에 바탕한 지식가능성 역설의 해결책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실 1과 2의 연언이 상황  $s$ 에서  $C$ 였다면  $p_i$ 였을 것이라는 조건명제가 알려지는 것을 막는 논파자라는 것을 확립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그 조건명제에 대한 믿음이 어떤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든 간에, 사실 1과 사실 2가 받아들여졌더라면 그 반대명제, 즉  $C$ 였다면  $\sim p_i$ 였을 것이라는 조건 명제를 믿는 것이 오히려 정당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이면 된다. 먼저 어떤 합리적 인식주체가 사실 1과 2가 받아들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인식주체는 다음 명제들도 믿었을 것이다.

- 명제 1. 만일  $H_{i-1}$ 였다면  $\sim p_i$ 였을 것이다.
- 명제 2. 만일  $C$ 였다면  $H_{i-1}$ 였을 것이다.<sup>12)</sup>

왜냐하면 사실 1을 받아들이는 합리적 인식주체는 명제 1을 믿을 것이며 사실 2와 명제 2는 논리적으로 동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

12) 명제 1과 명제 2는 영어에서 가정법 조건문, 즉 “If it were the case that A, then it would be the case that B” 형태의 문장으로서 쓴 것이다. 언어철학 문헌에서는 이런 조건문을 “반사실적 조건문” (counterfactual conditional)이라고 불러왔는데, 이 용어의 한 가지 문제점은 그런 조건문이 꼭 그 전건이 거짓 혹은 반사실적이라는 함축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워낙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필자도 이 용어를 쓰기로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명제 1과 명제 2가 각각  $H_{i-1}$ 이나  $C$ 가 거짓임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면 가언삼단논법에 의해서

명제 3. 따라서  $C$ 였다면  $\sim p_i$ 였을 것이다<sup>13)</sup>

는 주장이 도출된다. 여기서 명제 1-3으로 이어지는 논변은 연역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C$ 였다면  $p_i$ 였다는 조건명제를 지지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증거와 사실 1과 2를 모두 연언한 것은  $C$ 였다면  $p_i$ 였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정의상 사실 1과 2의 연언은 그 조건명제를 위한 주어진 증거의 논파자이다. 나아가서 상황  $s$ 에서 사실 1과 사실 2가 알려지거나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들이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도  $C$ 였다면  $p_i$ 였다는 명제에 대한 앎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종합하자면, 사실 1과 사실 2가 만일 알려졌더라면 명제 1과 명제 2를 믿는 것이 극히 합리적이었을 것이며, 명제 1과 명제 2로부터는 명제 3, 즉  $C$ 였다면  $\sim p_i$ 였다는 것이 도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1과 사실 2의 연언은  $C$ 였다면  $p_i$ 였음을 앎을 방해하는 논파자가 된다. 따라서  $p_i$ 가 실제로 참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에징튼이 제안하는 지식의 모형에 의거해서는 — 즉  $C$ 였다면  $p_i$ 였음을 아는 방식으로는 — 알려질 수 없다. 즉 그녀의 이론에는 반례가 존재한다.<sup>14)</sup>

13) 여기서 “...였다면...였을 것이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구조이다. 이런 형태의 가언삼단논법은, 그것이 포함하는 조건연결사가 반사실적일 때에는, 언제나 타당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H_{t-1}$ 이  $C$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면 이 논변은 타당할 것이다 (Bennett 2003, pp. 159-60). 그런데,  $H_{t-1}$ 는  $t$ 이전의 우주의 실제 역사 전체이고  $C$ 는  $t$ 이전에 실제 성립하는 어떤 조건을 기술하기 때문에,  $H_{t-1}$ 가  $C$ 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반사실적 가언삼단논법이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지만, 위의 특정한 예화는 타당하다.

14) 앞에서 지적한 대로 UJT 분석에도 반례가 존재하며, 특히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 논파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앎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Lehrer and Paxson 1969; Johnsen 1974). 따라서 어떤 소립자 수준의 사건에 대해



## 7. 결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반실재론의 핵심인 이른바 검증원칙에 대해 지식가능성 역설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논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약한) 검증원칙 대신 에징튼이 제안한 새로운 검증원칙을 채택하면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살펴보았다. 더하여 에징튼은 어떤 형태의 반사실적 조건 명제를 앞에 의해서 실제 상황 밖에 있는 (단지 가능한) 인식주체가 어떻게 실제 상황 안에 어떤 사실이 성립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인식론자들이 자주 논하는 이른바 논파자의 개념을 이용하여 그녀의 검증원칙이 소립자 수준의 사건을 기술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논하였다. 따라서 에징튼의 검증원칙 역시 극복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힌다.

---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참된 믿음이 주어졌을 때, 설혹 그 증거에 대한 논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앎을 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UJTb 분석에 대한 알려진 반례들에서는 주어진 논파자가 단지 과도적인 논파자에 불과하여 앎을 방해할 수 없는 반면, 이 절에서 논한 소립자 수준의 사건들에 대한 반례는 그런 과도적 논파자가 아니다. 따라서 UJTb에 대한 반례는 여기서 무시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Bennett, J. (2003), *A Philosophical Guide to Condit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 Dummett, M. (1959), "Truth,"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59, pp. 141-162.
- Dummett, M. (2001), "Victor's Error," *Analysis* 61, pp. 1-2.
- Dummett, M. (2009), "Fitch's Paradox of Knowability," in Salerno (2009), pp. 51-52.
- Edgington, D. (1985), "The Paradox of Knowability," *Mind* 94, pp. 557-568.
- Edgington, D. (2010), "Possible Knowledge of Unknown Truth." *Synthese* 173, pp. 41-52.
- Fitch, F. (1963), "A Logical Analysis of Some Value Concepts," *The Journal of Symbolic Logic* 28, pp. 135-142; reprinted in Salerno(2009), pp. 21-28.
- Gettier, E. (1963),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Analysis* 23, pp. 121-123.
- Hand, M. and Kvanvig, J. (1999), "Tennant on Knowability" *Australian Journal of Philosophy* 81 (2), pp. 216-228.
- Hart, W. D. and McGinn, C. (1976), "Knowledge and Necessity"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5, pp. 205-208.
- Hintikka, J. (1962), *Knowledge and Belief: an Introduction to the Logic of the Two Not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 Johnsen, B. (1974), "Knowledge", *Philosophical Studies* 25, pp. 273-282.
- Lehrer, K.&Paxson, T. (1969), "Knowledge: Undefeated Justified True Belief", *Journal of Philosophy* 66, pp. 225-237.
- Polkinghorn, J. (2002), *Quantum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 Prior, A., Hasle, P., Ohrstrom, P., Brauner, T., Copeland, J. (2003), *Papers on Time and Tense*, Oxford University Press.
- Salerno, J., (ed.) (2009), *New Essays on the Knowability Paradox*, Oxford University Press.
- Shope, R. (1983), *The Analysis of Know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wain, M. (1974), “Epistemic Defeasibility”, *Th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1.1, pp. 15-25
- Tennant, N. (1997), *The Taming of the True*, Oxford University Press.
- Tennant, N. (2001), “Is Every Truth Knowable? Reply to Williamson,” *Ratio* 14, pp. 263-280.
- Tennant, N. (2009), “Revamping the Restriction Strategy,” in Salerno (2009), pp. 223-238.
- Williamson, T. (1987a), “On the Paradox of Knowability,” *Mind* 96, pp. 256-261.
- Williamson, T. (1987b), “On Knowledge of the Unknowable,” *Analysis* 47, pp. 154-158.
- Williamson, T. (2000), *Knowledge and its Limits*,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T. (2009), “Tennant’s Troubles,” in Salerno (2009), pp. 183-204.

성균관대학교

Research Institute of Philosophy and Liberal Art Education,  
Sunkyunkwan University  
newitx@gmail.com

---

## Knowability Paradox and Defeater for Counterfactual Knowledge

Namjoong Kim

---

Every (semantic) antirealist accepts one or another form of verification principle. The principle has strong and weak forms, the strong form being highly counterintuitive but the weak one being more plausible. Understandably, antirealists have preferred the weak form of verification principle. Unfortunately, the so called knowability paradox shows that those two forms are indeed equivalent. To solve this problem, Edgington suggests a yet new form of verification principle. Unfortunately, her new principle has its own difficulty. To overcome this difficulty, Edgington provides a new model of knowledge, according to which every true proposition is somehow associated with a known counterfactual conditional. In this paper, I shall argue that even this new model of knowledge confronts with an insurmountable problem.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in the microscopic levels, some facts manage to occur despite very low physical chances. I will argue that the counterfactuals linked with those facts cannot be known due to the existence of epistemic defeaters. Hence, Edgington's knowledge model does not work in all cases.

Key Words: Antirealism, Verification principle, Epistemic defeater